

일생의 독서계획은 합리적인가

크리프톤 파디만의 목록과 재평가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일생의 독서계획’이라는 제목은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드물지 않게 독서목록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명저들은 많고, 또 읽어서 분명히 득이 되는 책들도 山積한 것이어서 책읽기를 권하는 의사가 진지하면 할수록 자연 독서목록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목록이 늘어나니 또 시간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러자니 아예 일생을 통해 읽어달라고 할밖에 없는 것이 이 發想의 기반이다.

그러나 필자는 자주 일생의 책읽기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좋은 책을 쫓아다니다가 언제 오늘의 좋은 책들을 읽고, 또 언제 내일을 준비할 책들을 읽을 만한 시간을 아껴둘 수 있는가. 그렇게 더욱 자주 自問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때로는 이러한 목록들의 의의와 장점을 인정한다. 원래 책읽기란 完讀의 책읽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떤 책은 한 장이나 두어 페이지만을 읽어도 읽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어떤 책은 목차만 보아도 좋고 서문만 읽어도 좋을 수 있다. 더 많은 책은 표지만 보는 것도 나쁠 것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독서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우리의 일상에는 실은 이러한 所有가 많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갖고 있다. 사용하지 않으니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무슨 차이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아다시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더 아끼고 중요해 보이는 소유일 수 있다. 책도 마찬가지. 읽지 않고 서가에 꽂아만 둔 책도 명백한 滋養이다. 그리고 또 어느 날엔가 불현듯 읽게 될 수도 있다.

“18~80세의 일반적 독서인”이 대상

이런 의미에서 누구나 언제 읽게 될지는 모르지만 책의 목록을 증가해가면서 자신의 서가를 넓혀가는 일은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목록의 하나로 상당한 평가를 받았던 저서가 제목 그대로 「일생의 독서계획(The Lifetime Reading Plan)」이다. 저자인 크리프톤 파디만(Clifton Fadiman)은 상당한 감각이 있는 미국의 지식인이며 도서전문가. 그는 이 작업을 원래 저서로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50년대 대중적 교양지 「디스 위크 매거진」 1959년 4월 12일자에 우선 100

“어떤 책을 읽는다는 일은

자기발견과 자기고양을 뜻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구로서 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크리프톤 파디만이 선정한

100권의 목록은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읽어도 여전히 새로운

자기발견을 주는” 책들이다.

권의 리스트만 발표했다. 그러나 그 목록의 반응이 너무 호평이어서 그 다음해에 목록별 解題를 붙여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그의 책 선정태도는 특히 공중적이다. “이 계획의 대상은 누구인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는 박식하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목록들에서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18세에서 80세까지의 일반적 독서인으로서는 현재의 이 목록에서 10% 이상도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나머지 생애에 어느 만큼 정신적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일부에는 혹시 학창시절에 이 책들의 제목은 알았지만, 혹이나 이 책들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기가 싫어서 손도 대지 않은채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이런 표현은 때로 가장 진실한 독서인들의 실제일 수도 있다.

그는 또 말한다. “나는 이 책의 효능을 이것저것으로 늘어놓고 싶진 않다. 우선 절대로 마법이 아니다. 이 책은 자동적으로 나나 또 여러분을 ‘교양인’으로 만들진 않는다. 더우기 인생의 신비를 깨우쳐주지도 않고, 또 더우기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그러한 효능이야말로 치약이나 자동차에 기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플라톤이나 헤밍웨이와도 관계가 없다. 단지 어떤 책을 읽는다는 일은 자기의 발견과 자기의 高揚을 뜻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구로서 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그러므로 저자에게 있어서 이 목록들은 저자의 자기발견에 어떤 계시들을 주었던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그의 이러한 소박한 태도가 쓸만한 것이다.

“25세 때 읽은 플라톤과 40세 때 읽은 플라

톤은 다르다”고 그도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 여럿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 표현은 독창적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37편의 희곡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은 370편의 희곡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변할 때 마다 10번은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책 읽기는 ‘정신의 운동’

이 관점에서의 그의 良書觀은 “계속해서 읽어도 여전히 새로운 자기발견을 주는 책”들이다. 이 표현 역시 썩 잘된 표현이다. 윌트 휘트먼도 말한 적이 있다. “책과 독서에서 요구되고 공급되는 것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에서가 아니라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가에 있다.” 크리프톤 파디만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도 쓴다. “건강한 운동을 사람들은 한다. 그것은 육체의 운동이다. 정신에 있어서도 운동을 해야 한다. 좋은 책은 그 운동의 도구이다. 좋은 책의 운동은 정신의 근육을 신축시키고 또 이완되는 사이에 상쾌한 피로감을 가져다 준다.”—그러니 육체의 운동과 다를 게 없다.

이 상쾌한 자유로움으로 그의 목록은 또 얼마쯤 편향적이다. 의도적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확인하고 느낀 것의 기준이다. 예컨대 그는 동양의 고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지 “내가 읽은 동양고전은 내 가슴 속에 아무 것도 불러 일으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라사키사키부(紫式部)」 「코란」 「바가바트기타」 「우파니샤드」를 읽은 일이 있다. 그러나 결코 재미있게 읽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이 목록을 넣지 않는 것이 나의 正道이다.”

그는 또 많은 서양고전도 제외시킨다. “번역이 마음에 안들기 때문이다.” 詩도 그에게는 번역의 어려움으로 원천적으로 不信된다. 푸쉬킨이 뜻에 맞지만 어떻게 푸쉬킨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가고 묻는다. 보들레르도 그렇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호머와 버질과 피테들을 버리지 않는 것은 번역이 어렵더라도 읽어야 할 것 같아서이다.

이러한 여러 제약들을 건디고 남은 목록 100권이지만, 역시 고전에 대한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흥미롭다. 미국적 지식인의 일반적 교양의 틀이 결코 미국적 개성화가 될 수는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유럽의 産兒이고, 따라서 유럽에의 종속을 보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다. 이제쯤 목록을 보기로

하자. (●표는 국내에서 간행되지 않은 책임) [古代]

호머 「일리아드」 「오딧세이」

● 헤로도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

플라톤 「選集」

● 아리스토텔레스 「倫理學」

● 아이스킬로스 「오레스티아」

소포클레스 「외디프스王」 「크로노스의 외디프스」 「안티고네」

● 유리피데스 「아르케스티스」 「메디아」

「히포류투스」 「트로이아의 女子들」 「엘렉트라」 「박카이」

● 루크레티우스 「萬象의 本質에 관하여」

● 웨르기리우스 「아에네이아스」

●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自省錄」

[中世]

아우구스티누스 「告白」

단테 「神曲」

초서 「캔테베리아 이야기」

[劇]

셰익스피어 「全集」

몰리엘 「희곡선집」

피테 「파우스트」

헨릭 입센 「희곡 선」

조지 버너드 쇼 「희곡 選集과 序文」

[小説]

존 번안 「天路歷程」

다니엘 데포 「로빈슨 크루스」

● 조너던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貧民救濟案」 「黙想錄」 「老年의 覺悟」

● 로렌스 스티븐 「트리스트람 · 산디」

헨리 필딩 「톰 존스」

제인 오스틴 「傲慢과 偏見」 「엠마」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 찰스 디킨스 「피크윅 페이스」 「데이비드 코퍼필드」 「쓸쓸한 집」 「우리들 공동의 친구」 「리틀 도리트」

윌리엄 대커리 「허영의 도시」

조지 엘리엇 「프로스江의 물방아」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머스 하디 「캐스터 브릿지의 市長」

조셉 콘라드 「노스트로모」

D. H. 로렌스 「아들과 戀人」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토마스 만 「魔의 山」

프랑소아 라블레 「카르칸쉴리아와 팡타그뤼엘」

볼테르 「캉디드」 / 스탕달 「赤과 黑」



〈本社 入力室〉

書體・機能・技術・ 品質・時間에서

완전히 다른 Computer 組版의 専門業體입니다.

얼마나
깊이
싼가?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品質이
좋은가?

特別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OK를 놓으면 當日로 印刷를 할 수 있는 「東國」의 시스템은 利用을 해 보셔야 얼마 만큼의 利益이 큰가를 實感할 수 있습니다.

數式・古字・學參・ 辭典・教科書 등

잘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Computer 組版에 失望을 하신 분,
一般的인 Computer 組版만
아시는 분을 위하여

하루에
3,000
페이지

서울 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257~3



東國電算株式會社

☎ (718) 5011 ~ 2・4071 ~ 2

발자크 「고리오 영감」 「으제니 그랑데」
프로베르 「마담 보바리」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드가 앨런 포 「단편소설」
나다니엘 호돈 「朱紅글씨」 「단편집」
허먼 멜빌 「모비딕」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의 모험」
헨리 제임스 「使者들」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고골리 「죽은 魂」
투르게니예프 「父子」
도스토예프스키 「罪와 罰」 「카라마조프家의 형제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 지크리트 운드셋 「크리스틴 라브란스타다」
〈哲學・心理學・政治論 및 에세이〉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존 로크 「第二政府論」
데이비드 흄 「悟性論」
존 스튜어트 밀 「自由論」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의 세계」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나이체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選集」
프로이드 「選集」
마키아벨리 「君主論」
몽테뉴 「수상록」
데카르트 「방법敍說」
파스칼 「명상록」
토크빌 「미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헨리 데이비드 도로 「월덴」 「市民의 저항」
에머슨 「選集」
윌리엄 제임스 「心理學原理」 「프래그머티즘」 「眞理의 意義」 「종교적 경험의 諸相」
존 듀이 「人間性과 行爲」
• 조지 산타야나 「懷疑와 動物崇拜」 「選集」
〈詩〉
W・H・오든, 노만 H 피어슨 「英語詩華集」
• 마크 반 도렌 「世界詩選集」
• 존 던 「選集」
밀튼 「失樂園」 「14行詩」 「아레오파지티카」
윌리엄 블레이크 「選集」
윌리엄 워즈워드 「短篇選集」 「抒情歌謠集」 「1800년 방의 序文」
사무엘 콜리지 「老水夫의 노래」 「크리스타벨」 「文學評傳」 「셰익스피어論」

윌리엄 에이즈 「全詩集」 「劇作集」 「자서전」
윌터 휘트먼 「詩集」 「民主主義 전망」
「풀잎」 「旅路를 돌아다 보고」
〈歷史・傳記・自敍傳〉
• 윌 듀란트 「文化史」
조지 트리벨리안 「英國史」
• 애런 내빈스, 헨리 코머거 「美國略史」
• 리처드 모리스(編) 「美國史의 기초자료」
• 린프 프카브리엘(編) 「憲法에 관하여」 「聯邦白書拔萃」
장 자크 루소 「참회록」
• 제임스 보스웰 「사무엘 존슨傳」
헨리 아담스 「헨리 아담스의 敎育」
〔現代作家〕
로버트 프로스트 「詩全集」
윌리엄 포크너 「음향과 분노」 「죽음의 자리에서」
어네스트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단편집」 「노인과 바다」
서머셋 모옴 「인간의 굴레」
E.M. 포스터 「印度로 가는 길」
T.S. 엘리엇 「詩全集」 「詩劇」
올더스 헉슬리 「훌륭한 新世界」 「평론집」
앙드레 말로 「인간의 조건」
〔其他〕
E.H. 고프리치 「美術이야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數學人間」
린코른 바네트 「宇宙・아인슈타인」
모티머 애들러 「讀書法」
• 크립톤 파디만, 찰스 반 도렌 「미국의 寶典」
이 목록은 보다시피 20%수준만이 우리에게 소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유의해 둘 것은 이러한 일반교양적 목록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성을 나타내는 몇개의 목록들이 언제나 우리에게선 소개돼 있지 않다는 현상이다. 그 목록들이 꼭 소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목록들을 모아보면 그 누락의 이유가 대부분 일본의 선택에 의한 우리의 재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이 점은 차후에 별도로 한번 논증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 목록은 지난 몇번의 목록들이 좀 硬性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부드럽게 쉬어가기 위해서 언급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파디만에게서 배울수 있는 것은 '보다 보편적이며 공중적인 목록'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목록은 반복해서 평가되어도 좋은 것이다.